

4 주 - 말해냄

4 주 - 1 일 - 건강해지기 위하여 말하고 은혜의 말을 말해냄

엡 4: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갈망하시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말해냄이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이 말할 때 마다, 말하는 것을 매우 유쾌하게 듣는다.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이 집회에서 말할 때 비록 그것이 잘 하지 못하더라도 매우 유쾌하다. 형제 자매들이여,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아보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점점 자살행위 같이 죽어갈 것이다. 말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것이다. 나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내 인간적인 경험에서 말하는 것이다. 내 건강의 60% 정도는 주님을 말해냄으로부터 유지된다. 내가 주님을 말해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금방 좌절되어져 기쁨이 없어진다. (*Everyone Speaking the Word of God*, pp. 10-11)

우리는 여기에서 한 원칙, 한 기본사항, 한 법을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가장 건강한 사람 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주님의 말을 말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이 주님의 말을 할 때 당신은 기쁨으로 가득찰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당신을 반대할 지라도 그들 안에 양심이 그들을 만질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양심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화회사에서 일하는 형제가 그들의 동료들 만날 때 마다 예수에 대하여 얘기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며 ‘그가 예수’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 그의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작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이 행복해 질뿐 아니라 당신 육신의 몸에도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의 몸이 깊은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이 닫힐 때, 깊은 숨을 쉴수 없게되도, 당신의 입이 열릴 때 당신이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깊은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한시간 이상 말을 전했고 지금 또 한시간 이상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럴 때 내가 깊은 숨을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깊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피곤하면 나는 오후에 낮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오늘 저녁에 또 나는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가 깊은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나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자매들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가지 충고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가십이나 험담을 말하지 말라.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더 많은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더 많이 행복해 질 것이다. 더 많이 말할 수록, 당신의 몸도 더욱 건강해 질 것이다. (*Everyone Speaking the Word of God*, p. 12)

딤후 2:4 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의 충만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갈망이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두번 째 갈망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말해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말해야 하며 또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권리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혀와, 두 입술을 주셨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먹기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 방자히 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말을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창조에 있어서 실패하신 것이다.

우리의 입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은혜의 말로 가득차야 한다. 주님이 입을 여실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흘러 나왔다(눅 4:22). **엡 4:29 절은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 나와야 하며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한담하는 시간, 전화로 떠드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보자. 우리는 또한 친척들을 방문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단지 집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말해내야 한다

4 주 - 2 일 - 주님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말해냄

민. 20:7-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찌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더이상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더이상 매맞은 반석이 되실 필요가 없으시다. 생수는 이미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 (히 7:27, 9:26~28)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막대기를 취하여”,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된다. 막대기를 취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되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와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석에게 명한다는 것은 매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하고, 우리에게 생명주는 영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 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고, 그 영을 달라고 믿음 안에서 요청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 영을 넘치는 생명공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빌 1:19)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기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아주 살아있는 방식으로 체험할 것이며 얼마 가지않아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이고, 대화의 형식을 가진 매우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살전 5:17)

우리 모두가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접촉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많은 일로 분주할 때에도 주님과 이야기 해야 한다. 우리가 막 화가 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오 주님, 화가 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할때도, 또한 말해야 한다. “주님, 내가 막 다른 이들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접촉하여 모든 것을 그분께 말해야 하며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교정과 치료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성질과 비난이라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참된 항생제이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 주님과 접촉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자신이 천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실제로 사시는 것이다. 갈 2:20 절에서 바울이 말한것 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같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항상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생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든 편지를 쓴다고 해보자. 편지를 쓰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에게 이러한 편지를 쓸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또한 변혁을 이룰 것이다.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서 편지를 쓰실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주님께 항상 말하기를 배우라. 그분에게로부터 숨어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 놓으라.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하고, 그분께 열고, 그분을 받아드리기를 배우라. 이것이 최선의 기도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가장 뛰어난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 “주님을 위하여 말한다고요? 우리 남편은 나를 화나게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말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개나 고양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새들도 당신의 대상이며, 풀이나 꽃 또한 당신의 대상이다. 먼저 당신은 주님께 말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고양이나, 개나, 새들이나, 또한 꽃들에게 말할 수 있다. “작은 꽃들과 풀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화를 내도 너희는 화를 내지 않는구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 3 일 -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말함

막 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딤후 4:2 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막 16:15). 제자들은 모든 나라들을 제자삼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도록 명하셨다. (마 28:19). 모든 피조물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꽃들과 동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 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혼련시킬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내가 권하는 바는 피조물들에게 말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하라고 되어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미쳐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항상 말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능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복음은 능력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마자 나는 바다가에서 바다에 대고 말하였다. 나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바다에 대고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The God-ordained Way to Practice the New Testament Economy*, Chapter 10, Section 1)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길의 새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께 저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 이십니다. 요한복음 1 장 12 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과 이야기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지 모른다. 당신은 다른 시간을 정해서 나중에 만날 수 있다. 신성한 아들의 명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말씀 하신 것과 동일 한 것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롬 8:29), 이것은 맏아들인 그의 형제들로서 모든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사도들일 뿐 아니라 선지자, 복음전하는자, 목자와 교사들이다. (엡 4:11), 그러나 그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맏아들의 지체들이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욱 높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는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선지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4:1 은 말한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우기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31 절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선지자이다. 아들로써 당신은 말하고 선지자로서 당신은 신언한다. 당신들은 모두 신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친지들과 동료들과 학우들에게 신언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신언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매일 넘쳐 흘러야 한다. 사람들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는 당신에게 정신나간 사람일 것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한다. “나는 정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미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 대하여 말해야 한다. (*Crystallization-Study of the Gospel of John*, Chapter 2, Section 5)

두 번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이 거친 방법으로 말한대도 나쁘지 않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어떤 영향력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시킴으로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합당하고 납득이 가는 아름다운 말씨로 말하겠지만 당신은 말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지난 십오년 동안 중국에서 쑨 성 박사가 복음전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때로는 말하다가 강단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고 사람을 밟고 강단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의 말은 어떤 순서에 따른 메시지가 아니었다. 어떤 때는 그가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어떤 때는 그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파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

(*Rising Up to Preach the Gospel*, Chapter 1, Section 1)

4 주 4 일 - 모든 사람이 집회에서 말함

엡 5:19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골 3:16 은갓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이름 안에 모여졌을 때 우리는 말해야 한다. 엡 5:19 과 골 3:16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은 대부분 노래 부르기 위한 것보다 말하기 위한 것이다. 찬송과 더불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말해야 한다. 우리의 배경으로 인해 우리는 찬송과 노래들을 말하는 습관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습관들을 취해야 하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것들과 우리의 현 환경들과 우리의 배경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모임의 방식에 따라 순수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약에서 우리가 모임 때 해야 할 특별한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수가 집회에 와서 말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집회에 와서 앉아 듣기 위해 온다. 우리는 “우리의 귀”만 집회에 가져온다. 집회에 와서는 다른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우리가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하기를 준비하고 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오늘날 약하고 가난하고 낮고 차가우며 빛나나게 된 모든 이유는 말함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잠잠함을 타파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한다면 즉시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사역하기 위하여 집회에 올 때 모든 이들이 잠잠하다면 이 침묵은 나를 거의 소멸시켜 버린다.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말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모든 이들이 말하고, 내가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면 나는 열광적이 된다. 당신이 유일한 농구 선수라면 당신에게는 어떠한 격려도 없음으로 경기를 하기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팀의 모든 선수들이 협력하여 함께 뛰다면 당신은 부흥될 것이다. 나의 부담은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여 집회의 침묵에 대항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방식을 잊어버리라. 집회에 올 때 당신은 말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집회에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로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하심을 성경에 계시된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험을 이러한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 체험 할 수록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에 관한 것만을 말하지 말고 그분 자신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그것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그런 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 골 3:16 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방식의 모임을 거절하고 모임 때 말하는 것을 훈련하길 바란다. 당신은 말하기 위하여 충분한 단어를 습득하여야 한다. 당신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한 단어들을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얻을 수 있다. 특별히 회복역 신약의 각주들과 라이프스타디를 사용하라.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역 각주는 매우 높고 깊은 말들이 들어있으므로 여러분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놀라우신 영에 대하여 우리는 일곱가지 수식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신약은 이 영을 분명하게 모든 것을 포함한 영하신, 과정을 거치신, 복합되신, 생명주는, 내주하시는, 일곱배로 강화된, 완결되신 영으로 묘사한다. 우리 중에 이십 오세 아래인 사람들은 영적인 단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 황금기에 있다. 당신이 단어들의 풍성을 가진다면 당신은 어떤 문장이나 문단 또는 작문을 쉽게 쓸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영적 문장들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중에서 신성하고 영적인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The Way to Practice the Lord's Present Move*, Chapter 3, Section 2)

4 주 - 5 일 - 집회에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함

엡 5:19 :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고전 14:26 :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전에는 성도들이 집회에서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였다. 우리는 순수한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러한 실행안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엡 5 장 19 절에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한다. 상호성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은 나에게 화답해야 한다. 우리 집회 가운데 시를 읊고 말하는 약간의 찬송시가 있어야 한다. 나는 모든 집회에서 말하는 시간 중 적어도 사분의 일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유의 크림과 같이 찬송은 어떤 구성 요소의 크림이다. 말하기를 배우는 최고의 길은 찬송으로 말하는 것이다. 찬송가 382 장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와 같이 찬송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찬송이 말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감동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는 찬송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고무시키며, 집회의 모든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찬송을 말해내는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집회에 많은 도움을 줄 정도로 장비될 것이다. 주님의 만찬 집회에서 단지 하나의 찬송가만 말해내더라도 아주 좋은 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찬송가를 말한 후에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래를 한 후 다시 그것을 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찬송가를 부를 필요가 없다. 한 찬송가를 노래하고 말하고, 또 노래하고 말할 때, 집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집회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리 말함의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말의 중심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 집회에서는 주로 신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 장 26 절을 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지금의 신약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주로 구약이었다. 초기 사도들의 시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쓰여진 많은 새로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있었다. 디모데 전서 3 장 16 절은 아마도 사도들의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단곡의 한 인용구였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시와 찬송과 노래를 아주 많이 사용했다. 어떤 선생들은 그 당시 사용한 시편이 구약의 오래된 시편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보다는 집회를 목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쓰여진 시와 찬송과 노래들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지금 우리에게 신약과 찬송가집이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의 찬송가집은 말하기에 아주 좋다.

적은 인원으로 찬송을 연습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살아 있고 훈련되고 해방된 영을 유지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실행하면 무엇가를 익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동시에 우리는 교정받을 것이며, 훈련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찬송은 특히 생명 체험과 진리에 있어서 부요하다. 찬송에 쓰여지는 시적인 언어는 아주 순수하다.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데 있어서, 찬송에 있는 그러한 정화된 말들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찬송집이 많은 숙고를 들여 쓰여졌기 때문이다. 찬송가 382 장은 7 절까지 있다. 우리가 이 절들을 서로 읽고 말해 낸다면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말한다면, 이 말함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할 때 사용되는 완전한 구, 절, 혹은 표현을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함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 방식으로 찬송가를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종종 우리는 반복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찬송가 382 장 후렴에서 “ 크신 영광 주 육신 입으사, 기묘한 풍성되셨네 ~ “ 의 구절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인 방식, 즉 천연적으로 읽고, 천연적으로 듣는 방식에서 탈피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따른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4 주- 6 일 -신언하므로 교회 집회에서 말해냄

고전 14:3 “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4 절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31 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통해 생명의 성장 안에서 산출된 뛰어난 은사는 신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 장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의해 개발된 모든 다른 은사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최고의 은사로서 신언하는 것을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14 장에서 신언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말하는 헬라어에 따라 3 절에 의해 증명된다. 만약 한 형제가 다른이들을 건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의 신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14 장에 있는 신언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말하는 것이며, 곧 다른이들 안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이들에게 주님을 사역(분배)하는 것(고전 14:3-5)이다. 영적인 은사들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합당하고 성장한 믿는이들로서 우리는 매일 다른이들 안으로 주님을 말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매일 실행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모일때 모두가 뭔가 나눌 것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의 성취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에 따라 교회 집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번째 항목은 시를 읊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시와 찬송이 노래하는 것이 아닌 첫째로 말해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5 장 18 절에서 19 절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다른이들에게 말해냄에 의해 영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고 말한다. 작곡된 시적인 가사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함보다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하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집회에서 찬송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은 또한 가르침과 계시와 다른 언어와 통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은 말해냄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두 항목들인 다른 언어와 통역은 기적적인 말해냄이다. 그것은 배움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 시와 가르침과 계시는 배움을 요구한다.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다른이들 안으로 주님을 말해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회중들은 듣는 것으로도 건축될 수 있으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건축될 수 없다.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건축되도록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성도가 2 분을 말할수 있고, 또 다른 성도는 5 분을 말할수 있으며, 또 다른 성도는 3 분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항상 말하는 2 백회의 집회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집회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라 할지라도, 2 년후에는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싫증이 나게 될 것이다. 설교자 자신조차도 같은 것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반대로 90 분 동안 2 백회의 집회를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말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성도가 3 분씩 말한다면 30 명의 성도들이 말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급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의 말해냄은 특별히 신선하고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두가 그의 말해냄에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회 집회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잔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될 때 한 가지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잔치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음식들로 가득하다. 어떤 중국의 잔치들은 스물 네가지 코스의 음식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집회에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집회가 놀랍겠는가! 우리가운데 아무도 그런 집회에 싫증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집회들은 누림으로 가득한 잔치들이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집회는 양육과 소중히 품음과 조절과 교정으로 가득하다. 교회생활에 너무 맞지 않는 습관을 가진 한 형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집회에서는 이런 형제의 습관을 만지는 메시지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회 가운데 20-30 명의 성도들이 말한다면 마침내 누군가 이 형제의 습관을 만지는 뭔가를 말할 것이다. 많은 분량이 집회 가운데 제시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만져질 수 있다. 이런 집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바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성도들이 건축되고 공급되고 갖춰지고 장비될 것이다. 이것이 신언에 대한 바울의 부담이다.